

유라시아 유민 150년: 한반도 지평에서 본 추방과 해방

민영진*

1. 동가: 기억의 저편에 있는 또 다른 민족사에 대한 구원사적 조명의 필요를 늦게나마 느끼면서

작년 연말이었는지 금년 초였는지, 벌써 반 년 전 일이다. C&C로부터 “한반도 지평에서 본 추방과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52년) 동안의 구소련 한민족의 이민사에 대한 구원사적 조명을 해보자고 하는 어려운 초청을 받았다. 그 주문을 받고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은, 그 요청을 받는 순간, 꼭 20년 전의 일이 순간 나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 때는 좀 놀랐지만, 곧바로 잊어버렸던 일이 새삼 뚜렷하게 떠올랐다.

1995년 7월에 15차 세계구약학회(IOSOT)²⁾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

* Canon&Culture 고문, 前 대한성서공회 총무

- 1) 러시아로의 최초의 한인 이주는 1863년 겨울 함경북도 국경지역의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노보고르드 만의 포세트 항 북방 약 5킬로미터의 치신허 강 (Tizinkhe River) 계곡에 정착한 것이다(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67).
- 2) 1950년에 발족한 국제구약학회(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udies of the Old Testament: IOSOT)는 매 4년마다 국제칠십인역학회(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IOSCS), 국제마소라학회(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ssoretic Studies: IOMS), 국제쿰란학회(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Qumran Studies: IOOS), 국제타르쿰학회(the

학교 세인트 존스 대학(St. John's College)에서 열흘 동안 있었다. 내가 머문 숙소는 핏츠윌리엄 대학(Fitzwilliam College) 학생기숙사였다. 하루는 핏츠윌리엄 대학가의 한 서점 창문에 붙어 있는 '금주의 베스트셀러'라는 책 광고를 보았다. 영국의 기행문 작가 겸 소설가인 콜린 터브론(Colin Thubron)의 중앙아시아 기행문인 *The Lost Heart of Asia* (1994)라는 책이었다. 아시아를 다룬 것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 중앙아시아를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가지고 와서 밤늦도록 읽었다. 지금은 낯설진 않지만 당시로서는 처음 들어 보는 "...스탄" 나라들, 즉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1989년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된 국가들을 방문하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애환과 희망을 기술한 기행문이었다. 구소련 해체 후³⁾ 독립한 나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눈을 번쩍 뜨게 한 놀라운 것은 어느 대목에선가 저자가 한 마을을 지나다가 코리아 소수민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낸 장면이다. 저자는 코리안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상세히 진술한다. 교단은 침례교다. 나는 그런 오지에 한국인 마을이 있고, 거기에 한국인 교회가 있고, 정기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 코리안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때 원동(遠東)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 간 이들의 후손들이다. 그 때까지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나는 소련이나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 콜린 터브론의 기행문을 읽으면서 원동지역에 살던 한국인들이 스탈린에게 강제로 이주를 당해 중앙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argumic Studies: IOTS) 등과 함께 모인다. 201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시에서 열리는 IOSOT에는 남아프리카 자체의 고대근동학회, 구약학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3)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or shortened to the Soviet Union was a Marxist-Leninist state on the Eurasian continent that existed between 1922 and 1991. It was governed as a single-party state by the Communist Party with Moscow as its capital."(Wikipedia)

시아로 옮겨갔고(18-20만명),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강제로 이주 당 해온 그곳에서 소수민족들 중 하나로 그 때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는 귀국 후 20년 동안 잊고 있었다.

김정우 교수가 올해는 해방 70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광복(光復)이 유랑민의 귀향(歸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향(失鄉), 추방(追放), 유랑(流浪)으로 줄곧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그들의 삶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추방(Exile, GALUT)과 해방(Exodus, YETZIAH, YETZIAT MITZRAIM)⁴⁾을 구원사적(救援史的)으로 조명해보자고 할 때, 그것도 장소를 옮겨 국내가 아닌 추방의 현장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50년 이민사(移民史)의 거점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했을 때, 장소성(場所性)과 시간성(時間性)에 밀착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서 우리의 문제를 밀착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변으로 흘러버릴 위험을 방지해주는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2. 자료

C&C 쪽에서 참여자들에게 미리 배부한 13편의 우리말 자료와 한편의 영문 자료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기에 너그러웠다. 특히 그 14편의 글에 제시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참고문헌에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고려인에 관한 연구, 사할린 한인에 관한 고찰,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역사 등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참고할 수 없는 러시아어와

4) 김정우 교수는 여기에서 구약신학의 용어 Exile과 Exodus을 사용한다. 필자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유학시절 먼저 들었던 과목 중 하나도 샤마리아후 탈몬 교수의 “포로와 귀환”(Exile and Return)이었다.

일본어 자료⁵⁾를 제외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심 분야별로 분류해 보았다.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⁶⁾,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역사⁷⁾, 구소

-
- 5)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소련 강제 이주 사례를 중심으로”에 붙은 참고 문헌 목록에 러시아어로 쓰인 자료들이 20여 가지 이상 다수 소개되어 있다.
- 6) 강주진, 『한국과 소련』 (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79);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고승제,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分析”, 『白山學報』 11 (1971), 149-168; 고승제, “연해주 이민사 연구(1853년-1945년)”, 국사편찬위원회, 『國史館論叢』, 11 (1990), 1-32; 권희영, “소련의 한인: 그 슬픈 역사와 오늘의 실태”, 『사회와 사상』 2 (1989);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 이주사 연구(1863-1917)”, 국사편찬위원회, 『國史館論叢』 41 (1993); 김영환, “소련 속의 한인들: 어떻게 살고 있나”, 『광장』 5; 김 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2005); 김순규, 『소련 속의 한국인: 개방정책과 한국어 열기』 (광장, 1989); 김승화, 『소련한족사』 (정태수 편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김 피오트르 게르노비치방상현, 『재소 한인 이민사: 스탈린의 강제 이주』 (탐구당, 1993); 류한배, 『한민족 러시아이민사 연구 서설: 한민족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 (세조연구소, 1999); 박 보리스 D. 부가이 N. F. 저/김광한이백용 역, 『러시아에서 140년』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4);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서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 (서울: 동아일보사, 1998); 심현용,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이민 초기의 쟁점과 현대적 의미”,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53-82; 와다 하루키,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7”, 서대숙 편,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1989); 윤상원, “시베리아 내전기 러시아 지역 한인의 군사활동: ‘한인사회당 적위군’과 ‘에호한인부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2011); 이동언, “露領地域 初期 韓人社會에 관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205-232; 이상근, 『韓人露領移住史研究』 (탐구당, 1996); 이창주, 『유라시아의 고려 사람들』 (명지대학교출판부, 1998);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韓人農業移民에 관한 社會史的 分析: 農民層分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7 (2000), 59-90;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歷史와 理論”, 『슬라브학보』 15:1 (2000), 349-384;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極東地域移住와 滿洲移住의 比較: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연구』 7(2000), 81-122; 이채문, “러시아/소련 극동지역 한인이주문제에 대한 정치 지리학적 고찰(1860-1937)”, 『슬라브학보』 17:1 (2002), 323-353;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고려인 러시아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8.27.-28);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7); 和田春樹,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 1917-1937”, 서대숙 편, 『소련의 조선인』 하와이대학 조선연구센터 논통 12 (1987); Hyon Kyu-wan,

런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⁸⁾, 러시아에서 진행된 민족운

-
- History of Emigration of the Korean People* (Seoul: Omun'gak, 1967); Kim Sung-hwa, *Essays on the History of Soviet Koreans* (Alma Ata: NAUKA, 1965); Kim Syn Khva, *Essays on the History of Soviet Koreans* (Alma Ata: NAUKA, 1965); Pavel Polian, "Assessment of Stalin's Forced Deportation and Rehabilitation Steps in Russia".
- 7) 구 스페틀라나 · 이형근 편저, 『스탈린 시대(1934-1938)정치탄압 한인(고려인) 희생자들』 1-2권(모스크바: 삼일문화원, 2002); 권희영, 『세계속의 한민족(독립국가연합편)』 (통일원, 1996); 권희영, 「한민족의 중앙아시아 이주 배경과 과정」,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토론회, 『중앙아시아거주 한민족 관련 연구를 위한 Workshop』 (1998.2.27.); 김 니콜라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와 나의 운명", 「한민족 포럼」 (2003); 김 블라지미르 저, 김현택 역,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문서로 본 반세기 이후의 진실』 (서울: 도서출판 경당, 2000); 리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김예브게니예비치, 『스탈린체제의 한인강제 이주』 (건국대학교출판부, 1992); 부카이 니콜라이 표도르비치, 『재소환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최정운 역, 류한배 감수) (세종연구소, 1996); 이광규, "한인 18만 명 참혹한 강제이주", 다시 쓰는 한민족 이민사 - 구소련④, 『뉴스피플』, 354 (1999); 이광규, "'신소련인' 만들기, 국어교육 말살", 다시 쓰는 한민족 이민사 - 구소련⑤, 『뉴스피플』, 355(1999); 이광규, "러시아교포 강제이주 60주년의 의미", 「재외한인연구」 7 (1998); 한 막스, "한인 강제이주의 역사적 의미", 「재외한인연구」 7 (1998); Nilolai Bugai, "The 'Korean Issue' in the Soviet Far East and Deportation of 1937", *Far Eastern Affairs*, 3 (1992), 96-103; R. Conquest, *The Nation Killers: The Soviet Deportation of Nationalities* (New York: Macmillan, 1970); M. Gelb, "An Early Soviet Ethnic Deportation: the Far-Eastern Koreans", *The Russian Review*, 54 (1995), 389-412; Aythur C. Helton, "Forced Migration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MIGRATIONWORLD* 24:5 (1996), 33-35; I. Kreindler, "The Soviet Deported Nationalities: A Summary and Update," *Soviet Studies* 3 (1986); Chaimun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ced Deportation of Two Ethnic Groups: Soviet Koreans and Volga Germans", *Proceedings of the 1st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2), 706-720; A. M. Nekrich, *The Punished Peoples: the Deportation and Fate of Soviet Minoritie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Norton, 1978); Song Moo Kh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1987); John J. Stephan, "'Cleansing' the Soviet Far-East, 1937-1938", *Acta Slavica Iaponica* (Thomas X, Hokkaido, 1992); Haruki Wada,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Dae-Sook Suh,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HI: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7), 24-59;
- 8) 강제석, "CIS체제 이후 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인의 생활문화와 민족정체성", 「아태

연구」 8:1 (2001); 김 게르만, “소련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이주 현황”,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고려인 러시아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8.27.-28); 김 G.N.,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문화적 발전』 (알마아타, 1980); 김현수, “카자흐스탄 공화국 언어축제에 즈음한 고려인 동포의 글을 읽고”, 『한민족포럼』(2003); 남 빅토르, 「이주사를 통한 구소련한인들의 현실과 전망」,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화: 2004년 재외동포의 현실, 그리고 미래』(2004. 11. 10-13); 남혜경 외 4인 공저, 『고려인 인구이동과 경제 환경』,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총서 4(2005); Ryudmila B. Khvan, 「중앙아시아 고려 사람들의 전통 문화」,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 8. 27-28); 박정열, “재외동포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고려인 동포들의 언어”, 『한민족 포럼』(2004); 백태현, “카자흐스탄 ‘고려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그 정체성 문제: 우슈토베 지역(까라탈 라이온)을 중심으로”, 『韓民族共同體』 9 (2001), 94-130; 백태현, “중앙아시아경제의 산업화와 고려인의 역할”,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2008); 심태용, “중앙아시아 한인의 현지 정착과 사회적 지위”,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2008); 심현용, “고려인의 신이주와 NGO의 역할”,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 8. 27-28); 심현용, “러시아에 강제 이주된 민족들의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8 (1999); 윤인진, 장원창, 이광규, 아중훈, 심현용, “독립국가연합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고려인의 당면 과제”, 『아세아연구』 44:2 (2001), 145-252; 윤인진,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생활과 의식』 민족문화총서 90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2); 이 애리아, 『타지키스탄의 민족 분쟁과 고려인』, 연구총서 (전남대사회과학연구소, 1999); 이 애리아,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문화변화”,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2004. 8. 27-28); 이준규,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민족연구』 7 (2001), 139-152; 임영상 · 황영삼, 『소련해체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임채완,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기초 조사 현황”, 『한반도 평화와 고려인』, 2005 동북아해의학자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5. 12.16-17); 임채완, “중앙아시아 한인 문제와 정책 과제”, 『한민족공영체』 2 (1994); 최한우, 「러시아 고려인 경제 환경 비교연구」,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세계화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구축』 (전남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한국동북아학회, 2004. 4. 29-3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연구』,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2001-1-1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한국정신문화원 토론편, “중앙아시아 독립운동지역답사와 인류학적 방법론의 필요성 - 구술사(oral history)를 중심으로”, <http://www.aks.ac.kr>; Valery

동에 관한 역사⁹⁾, 연해주(沿海州)와 사할린 한인사회의 역사¹⁰⁾, 동아시아

Han, “중아시아 한인들의 정체성 문제”,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9) 권희영, “소련에서의 민족운동과 한인강제 이주”, 『한국독립운동사 사전 - 총론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김 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조영환 역, 박환 해제) (국학자료원, 1997); 박환, 『러시아 한인 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반병률, “노령연해주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심현용, “극동연해주에서의 러시아 한인 민족 자치구: 역사적 사실 및 전망”, 『한국시베리아학보』 창간호 (1999);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이종훈, “재소한인의 자치공화국 결성문제”, 『입법자료분석』 91 (1991);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 10)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 (2006); 김 텔미르,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의 현황”, 『극동문제』 (1999), 66-69; V. L. 라린, E. A. 플라센, “재소한인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 조사 결과 분석”, 『러시아연구』 1:2 (1994), 166-182;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 (2005); 반병률,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 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30 (2008);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배규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고려인의 역이주와 생활실태”, 『동포논총』 5 (2001), 73-93; 이광규, “연해주에 한인자치주를 세워야 한다”, 『월간조선』 (1993), 606-609;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 총서1 (서울: 집문당, 1998); 이광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사회의 제문제”, 『재외한인연구』 5 (1995), 5-95; 이문규, “연해주 한인 유민과 강제이송”, 『교포정책자료』 21 (1984);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이송호·이재훈·김승준, 『연해주와 고려인』 (서울: 백산서당, 2004); 이은숙·김일림,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체성: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0:1 (2008); 이재혁,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과 인구 발달”, 『국토지리학회지』 44:2 (2010); 이정식, “연해주 농업 개발과 고려인”, 『한민족공동체』 9 (2001), 182-213; 이종훈, “중아시아 한인 연해주 재이주 현황과 정책과제”, 『한민족공동체』 3 (1995), 75-105; 이종훈, “중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 『재외한인연구』 7 (1998); 이채문, “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중국 노동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민족 발전전략』 (한국동북아학회 국제학술회의, 2001); 전영섭, “구소련 고려인 강제 이주와 연해주 귀환 문제”, 『시민과 변호사』 53 (1998); 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한민족문화연구』 38 (2011); 정진아, “국내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과 한국인의 문화 갈등”,

아의 식민과 분단의 역사¹¹⁾, 한중일(韓中日) 3국 공동의 역사 쓰기 시도¹²⁾, 고려인과 한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상태, 그들의 민족 정체성, 그에 관한 인류학적 심리학적 연구¹³⁾,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 관련 정책

「통일인문학」 58 (2014); 정치혁,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한국”, 「한민족공동체」 3 (1995);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사할린 한인』(2009); 텐옥사나,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한혜인,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 해방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사할린 한인 귀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2 (2011); I. Volodin, “Foreign Espionage in the Soviet Far East”, *PRARDA*, (1937).

- 11) 곤도 다카히로,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김기봉, 『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김정인 외, 『동아시아의 역사갈등의 현황 및 대안적 역사교육의 모색』 (학술진흥재단, 2005); 김용덕,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동북아역사재단, 2008);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2008); 역사문제연구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 12) 신주백,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2014); 한중일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편, 『한중일동아시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인, 2009);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휴머니스트, 201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한혜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역사교과서대화 방안」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 13) 부가이 니콜라이 저/오성환 역, 『시간의 시련』 (서울: 시대정신, 2004);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원,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 (선인, 2012);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원, 『코리안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박선영,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범위 재설정”, 『저스티스』 134:2 (2013);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 러시아 원동시기(1863-1937)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2008); 반병률, “3.1 운동 전후 러시아 한인사회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009); 임채완, “재소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9 (1993); 임채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39:2 (1999); 서봉연, 「자아정체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박명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이광규, 전경수, 『재소 한인: 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3); 정동주,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1995);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한 발레리 세르게이비치,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고담사, 1999).

방향¹⁴), 국제이주론, 노동력의 국제이주, 인구지리학 등의 관점에서 고려인을 연구한 것¹⁵), 구소련 내의 고려인을 포함하여 민족 문제를 다룬 것¹⁶),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원동의 한인을 만난 것,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분석하여 역사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와 실제 작품들¹⁷), 및 아나톨리 김(1938-)과 그의 작품들¹⁸), 구소련 유라시

-
- 14)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해외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해외동포의 생활실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다나, 1996); 노영돈, “재외동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교포정책자료』 113 (2003).
 - 15)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석현호, “국제이주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2000), 5-37; 이희연, 『인구지리학』 (법문사, 1998); 조혜중, 『인구지리학개론』 (명보문화사, 1993); A. N. Petrov, “Koreans and their Significance in the Economy of Far Eastern Region”, *North Asia* 1, 25 (1929).
 - 16) 조정남, 『소련의 민족문제』 (서울: 교양사, 1988); Elizabeth E. Bacon, *Central Asians under Russian Ru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Jay Olivia, *Russia and the West from Peter to Khrushchev* (Boston: D. C. Heath & Co., 1965);
 - 17) 김기철, “갈자국”, 『레닌기치』 1961.12.24; 김기철, “복별”, 『레닌기치』 1969.11.12; 김남석, “뚝구쓰 빠르찌산”, 『레닌기치』, 1971.11.20.-11.23; 김 아나톨리 저, 심민자 역, 『켄타우로스의 마을』 (문학사상사, 2000); 김 아나톨리 저, 이해경 역, 『신의 플루트』 (문학사상사, 2000); 김준, “해당화”, 『레닌기치』, 1958.3.19; 김준, 『십오만원사건』 (카사흐 국영문학예술출판사, 1964); 김준, “지흥련”, 『레닌기치』 1960.10.2-10.11; 리 왜체슬라브, “저 멀리 산이 보인다”, 『레닌기치』 1988.4.29.-5.3; 이정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연구 - 역사 복원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8) 아나톨리 김(1938-)은 고려인 3세대. 지금은 러시아가 낳은 한국계 대문호로 알려져 있다. 문학사상사에서는 러시아가 낳은 한국계 대문호 아나톨리 김의 환상(幻想) 문학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1권이 심민자 역의 『켄타우로스의 마을』(문학사상, 2000)이고, 2권이 이해경 역의 『신의 플루트』, (문학사상, 2000)이다. 구소련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극동(極東)의 사할린에서 졸업한다. 대학 수업은 모스크바에서 받는다. 모스크바 미술대학, 고리키 문학대학을 거쳐 작가의 길로 접어든다. 1973년 단편 「수채화」로 문단에 등단한다. 「수채화」와 함께 「사할린의 방랑자들」, 「묘꼬의 들장미」 등을 함께 엮어 『푸른섬』이라는 작품집을 낸다. 이어서, 『네 고백』(1978), 『피꼬리의 울음소리』(1980), 『옥색 띠』(1981), 『사할린의 사람들』(1983), 첫 장편소설 『다람쥐』(1984), 『아버지의 숲』(1989), 『켄타우로스의 마을』(1993), 『신의 플루트』(1995) 등이 나온다. 그의 작품은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 지역 기행문¹⁹⁾ 등으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해 보았다.

신학 쪽에서 거의 외면했던 분야에 최근 20여 년 간, 각분야의 학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과문(寡聞)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었다. 아직 한국 교회 쪽에서, 신학 쪽에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나 사할린의 한인들에 대한 신학적 접근 시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⁰⁾ 지금이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한 C&C 쪽의 헤안이 존경스럽다.

3. 소수민족의 자기이해

3.1. 박해의 메커니즘

서강대학교 심현용 교수가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²¹⁾은 강제이주(強制移住)나 추방(追放) 혹은 유형(流刑)과 같은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늘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자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다. 스탈린의 강제이주는 20세기 중반 이전이었지만, 21세기의 문턱 앞에서도 코소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유고연방 세르비아계

등 세계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다.

19) N. M. Przheval'skiy, *Travels in the Ussuri Region, 1867-1869* (Moscow: Geographicheskoy Literatry, 1947); Colin Thubron, *The Last Heart of Asia* (London: Harper Perennial, 1995).

20) 이형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 한인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러시아본부, 2001); 이형근,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선교와 신학』 16 (2005), 96-122, 244-247; 남정우, 「러시아정교회의 국가-정치적 성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3) 등이 학계에 문헌으로 소개되어 있다.

21) 심현용, "강제이주 발생 메커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인종청소나 다름없는 추방과 탄압이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소수민족들과 그들이 속한 다수민족 간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내의 56개 소수민족²²⁾ 집단들 중에서 독립을 시도하는 집단은 억압을 받는다. 라오스²³⁾나 베트남²⁴⁾이나 캄보디아²⁵⁾의 소수민족들의 민족관계의 긴장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공민권 박탈, 거주지 선택의 자유 박탈,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억제, 민족어 제한/말살, 적대감, 노예화의 탄압으로 표현된다.

성경에서는 고대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가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히브리인들이 바로 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파라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새번역』 출 1:10)

망국 이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피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세기도 못 되어 모국어를 잊어 그들을 위해 기원전 4-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했던 사정,²⁶⁾ 바빌

22)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의 명단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를 보라.

23) 라오스에는 49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24)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서 베트남 정부가 공인하는 민족의 수가 54개에 이른다. 최대 민족은 킨족(京族) 또는 비엣족(越族)으로 보통 베트남인이라고 할 때 다수 종족인 이 킨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킨족은 베트남 전체의 86.2%를 차지한다.” <https://ko.wikipedia.org/>

25) 크게 나누면 10개 민족, 세분하면 30여 민족. “Ethnic Groups in Cambodia” https://en.wikipedia.org/wiki/Ethnic_groups_in_Cambodia

26) 후에 이것이 기독교의 구약이 된다. 기독교가 시작될 무렵 고대근동의 언어는 알렉산더 대왕의 근동 정복에 따라 그리스어가 그 지역 언어가 된다.

로니아로 유배된 이들 역시 한 세기도 못되어 그들의 모국어를 잊고,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유배지에서 쓰던 아람어를 줄곧 사용하여 히브리어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었어야만 했던 사정을 우리는 아람어 타르굼의 기원을 보여주는 본문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通譯)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새번역』 느 8:8)

이러한 사정은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소수민족은 늘 다수민족이나 민족 연합에게는 위험한 존재다. 스제반 김의 회고록²⁷⁾은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 안에서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던 긴 역사를 회고하다.

전쟁 기간 내내 소수민족은 위험한 시민이라는 불신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았다.²⁸⁾

그 동안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조선인들의 거주지 이동과 유랑에 관한 - 인용자)는 금지, 은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제(禁制)를 우회하여 비록 암시적으로나 이솝식 우화(寓話)의 방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일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조선인 아나톨리 김의 작품, 특히 그의 중편소설 『피꼬리의 메아리』(할머니 올가의 형상 속에서), 『과밭』(수척한 노인네의 형상 속에서), 그리고 일련의 단편소설과 희곡 『뻐꾸기 우는 소리』에서 서글픈 고백의 윤곽만을 볼 수 있다.²⁹⁾

통치자의 이러한 제재(制裁)와 감시(監視)를 받는 소수민족이 자기

27) 스제반 김,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 잃어버린 모국어”

28) 스제반 김, 129.

29) 스제반 김, 123.

표현을 위장(偽裝)하는 것은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만 4년 햇수로 5년을 나는 베트남의 한 소수민족이 번역한 성경 초안을 감수한 일이 있다. 이 일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기밀 프로젝트였다. XXX 소수 민족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 협조한 대가를 지금까지 톡톡히 지불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 젊은 이들에게는 유학의 기회마저 없다. 자신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내가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일한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소수 민족 번역 팀 중에 한 원로는 자신들의 삶 이야기를 그들의 컨설턴트인 내게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은유(隱喻)를 쓰는 신중함을 보였다. 한번은 번역 검토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세차계 비가 내리자 그들 중 원로 한 분이 잠시 쉬었다가 하자고 제안한다. 70대 초로의 그 번역자는 날보고 들어보라고 하면서 폴마리 베를렌 (Paul-Marie Verlaine, 1844.3.30.~1896.1.8)의 시 한 편을 낭송하겠다고 한다. 베를렌은 19세기말 프랑스의 시인이다. 그의 시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Il pleure dans mon coeur)를 프랑스어로 암송한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 기원과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묻은 내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었다.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³⁰⁾

- 폴 베를렌

30) [http://allpoetry.com/It-Rains-in-My-Heart-\(Il-pleure-dans-mon-coeur\)](http://allpoetry.com/It-Rains-in-My-Heart-(Il-pleure-dans-mon-coeur))에 실린 영어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임. © by owner. Added by volunteers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provided at no charge. Dmca. 같은 자료를 다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http://oldpoetry.com/opoem/show/24036-Paul-Verlaine-I-Pleure-dans-on-Coeur>.

마을에 비가 내리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
이 칙칙한 우울증은 어찌자고
이리도 흠뻑 내 마음을 적시는가!

아 달콤한 저 빗소리
땅위에도 저 지붕에도
이미 무더져버린 내 심장에도 내리는구나
아 저 음악 소리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내 심장에도
까닭 모를 비가 내려!
뭐라고? 까닭을 모른다고?
그렇지, 그 슬픔, 어찌 까닭을 알 수 있겠어!

누굴 특별히 미워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아, 애간장 끊어지는 이 통증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내 마음을 쏘시는 이 극심한 통증, 설명할 길 없네

“비(울음)”, “우울증”, “무더진 심장”, “이유를 묻지 않는 삶”, “통증” 등의 낱말들이 이미 자신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번역자는 자기 마음을 폴 베를렌의 시로 위장(偽裝)하여 말한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현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3.2. 본문의 융합: 이스라엘의 자기이해의 발전

이스라엘은 신앙고백에서 자신들의 유랑과 유민의 역사(신 26:5b-9), 이민족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강제노역에 혹사당했던

역사(신 6:21), 자신들의 역사의 여러 국면에서 겪었던 멸시와 거절과 고통(사 53:2-7)을 언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결국 건강한 나라가 되기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한다.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 당시의 제국주의와 경제적 부요를 성경문필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규탄한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구실을 하기 위함인데, 다윗의 주변국가 합병은 군사적 정복일 뿐이고, 솔로몬의 피정복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조공은 경제적 수탈일 뿐, 이스라엘의 역사적 존재 이유와는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이사야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복의 전달자 구실은 그 개념이 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중동의 세 나라 곧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로 확대된다. 이 세 나라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다. 우선 이 세 나라가 화해하고 나서 그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3.2.1.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신 26:5b)

5b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7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번역』 신 26:5b-9)

전체적인 구조는 출애굽과 땅 진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애굽이

땅 진입보다 더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다. 탈출 자체보다는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당했던 학대(虐待, רעע)와 괴롭힘(ענה)과 강제노동(強制勞動, עבדה), 거기에 따른 히브리 노예의 울부짖음(צעק)을 주께서 들으시고(שמע), 노예들이 당하는 참상(慘狀, עני)과 고역(苦役, עמל)과 억압(抑壓, לח)을 친히 보시고(ראה)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צא)는 것을 상세히 진술한다.

전통적으로 번역들은 히브리어 ‘아라미 오베드 아비(אָבִי אֹבֵד אַרְמִי)’를 “우리 조상은 류리(流離)하는 아람사람”(『구역』³¹⁾, “내 조상은 유리(流離)하는 아람 사람”(『개역』³²⁾, “내 조상은 방랑(放浪)하는 아람 사람”(『개정』³³⁾,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새번역』) 등으로 번역한다. KJV은 “내 조상은 곧 파멸당할 아람사람이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소수민족으로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살았다....”³⁴⁾ 고대 그리스어 역(LXX)은 “내 조상은 아람[시리아]을 버리고 (Συρίαν ἀπέβαλεν ὁ πατήρ μου)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민족으로 몸 붙여 살았다....”³⁵⁾라고 하여 히브리어 본문과는 다른 이해를 반영한다.³⁶⁾ 아람어 온켈로스 타르굼(OKE)³⁷⁾은 “... 아람 사람 라반이 우리 조상 야곱을

31) “... 우리 조상은 류리(流離)하는 아람사람이온디 수가 적은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 가서 우거하더니 거기서 못출내 크고 강하고 번성할 나라를 일우웠 느이다”(『구역』 신 26:5)
 32) “...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개역』 신 26:5).
 33) “...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개정』 신 26:5)
 34) “... A Syrian ready to perish was my father, and he went down into Egypt, and sojourned there with a few, and became there a nation, great, mighty, and populous:” (Deu 26:5 KJV).
 35) “... My father abandoned Syria, and went down into Egypt, and sojourned there with a small number, and became there a mighty nation and a great multitude.”(Deu 26:5 LXE).
 36) 그리스어 번역들이 사본에 따라 이독(異讀)을 보인다.
 37) OKE - Targum Onkelos on the Pentateuch (English).

파멸시키려 하여 아버지와 나는 미즈라임으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몸붙여 살았다....”³⁸⁾라고 번역하였다. 위(僞)요나단 타르굼(PJE)³⁹⁾은 “... 우리 조상 야곱이 처음에는 아람의 나하리아로 갔었는데, 라반이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그후 야곱은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몸붙여 살았다.... ”⁴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을 “아람사람”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람사람이었던 것(창 24:10; 25:20, 26), 그리고 야곱 자신이 외삼촌 아람 사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았던 것(창 31:41-42)에서 연유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이 유랑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때로는 다른 거대 민족에게 박해를 받거나 파멸의 위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전승시킨다. 고려인들에게도 이주 1세대에게 들은 바 구전을 그 후세대가 전승시킨다면, 땅이 없어서 농사지를 땅을 찾아 러시아로 월경한 조상들의 역사를 바로 이렇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3.2.2.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奴隸)로 있었으나” (신 6:21)

21b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22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23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38) “... Laban the Aramite sought to destroy my father, I and he went down to Mizraim, and dwelt there with a few people, but became there a people great and strong.”(OKE Deut 26:5).

39) PJE - Targum Pseudo Jonathan on the Pentateuch (English).

40) “..... Our father Jakob went down into Aram Naharia at the beginning, and (Laban) sought to destroy him; but the Word of the Lord saved him out of his hands. And afterwards went he down into Mizraim and sojourned there, a few people; but there did he become a great people, and mighty and many. (PJE Deut 26:5).

우리에게 주셨다. 24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25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새번역』 신 6:21b-25)

탈출(출애굽, מצ), 새 땅(ארץ), 규례(規例, קח)로 이어지는 역사적 신앙고백이다. 이집트에서 노예였었는데 주께서 자기들을 거기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 강조된다. 노예상태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없다. 출애굽 주제가 새 땅 진입 주제로 이어진다. 지켜야 할 규례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 경외(תַּיִדְוּתֵי הַיְיָ)와 함께 언급된다. 고려인들이 그들의 고난의 역사를 이 역사적 고백과 함께 직조(織造)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蔑視)를 받고, ...” (사 53:3)

2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7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번역』 사 53:2-7)

“고난 받는 종” 본문의 일부다. 그 종이 받은 수모(受侮) 묘사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의 요약이기도 하다. 병약(病弱)한 모습, 멸시(蔑視), 천대(賤待), 고통(苦痛), 흉측(凶測)한 외모(外貌), 그러나 이것이 대속적(代贖的) 고난(苦難)으로 언급된다. 아마도 1937-1939년 강제아주 초기의 고려인의 모습 묘사이기도 할 것이다. 아나톨리 김은 그의 작품 『신의 플루트』에서 가학(加虐)과 피학(被虐)의 구체적인 모습을 쥐를 먹이로 먹어야 하는 고양이와 고양이의 먹이가 되어야 하는 쥐의 관계로 묘사한다. 쥐는 고양이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잡아먹지만 말아달라고 하면서, 고양이에게 물리고 할퀴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양이를 기쁘게 하려고, 고양이로 웃게 하려고 피를 흘리면서 격렬하게 춤을 춘다.⁴¹⁾ 그러나 쥐는 고양이의 밥이 되는 숙명을 피하지 못하고, 고양이는 쥐의 가해자로 살다가 죽는다. 여기에는 대속적 고난은 없다.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물며 대속(代贖)이나 구속(救贖)의 의미라! 고려인 기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소수민족의 고난이 다수 집단에 대한 구원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다.

3.2.4. “너는 복(福)의 근원(根源)이 될 것이다”(창 12:2)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새번역』 창 12:1-3)

41) 아나톨리 김, 238-241쪽

농토 분배와 일정 기간 세금 감면, 안전 보장과 자녀 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착한 고려인들에게 러시아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위한 일정한 몫을 담당하는 것, 쌀 농사를 통해 러시아의 먹거리를 넉넉히 공급하는 것 등은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고려인 집단 부락에서 살지 않고 완전히 러시아인이 되어 버린 고려인들도 그가 속한 사회에서 국익을 위한 자신들의 구실을 찾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다. 자신들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일이 자신들의 공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3.2.5.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새번역』 사 19:24)

23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통하는 큰길이 생겨, 앗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앗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4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새번역』 사 19:23-25)

유라시아의 고려인들은 북한을 고려하면 자신들을 “한국인(韓國人)”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남한을 고려하면 자신들을 “조선인(朝鮮人)”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궁여지책으로 고안된 것이 “고려인(高麗人)” 곧 “카레이스키”다. 조상의 나라, 분단된 한반도는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다. 남한 사회로부터는 일찍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로 이주한 이들이라고 하여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기

도 하고, 러일전쟁 때는 일본의 첩자(諜者)로 오해 받기도 했다. 한반도의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이들 네 나라는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국경문제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불씨와 같은 것이 이들 사이에 있다.

창세기 기자(J)와는 달리 이사야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화약고 같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만이 홀로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세계가 평화와 안식의 복을 받으려면 이 세 나라 사이에 미움과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집트가 그리고 앗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만 이 세 나라가 복의 전달 매체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3. 디아스포라의 자기이해: 알렉산더 디아스포라의 이사야 재해석

23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통하는 큰길이 생겨, 앗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앗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4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앗시리아에 살고 있는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아,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이 되어라" 하실 것이다. (LXX 사 19:23-25의 한국어 번역)

기원전 722/1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긴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6년에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국민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가면서 왕조가 끊어진다. 기원전 4세기 이래 알렉산더대왕에게 정복된 이집트(기원전 332년)에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섰고,

알렉산드리아 시를 중심으로 유대인 정착 도시가 형성된다.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다. 이것이 소위 “칠십인역”(LXX)이다. 이 번역에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포함하여 당시 중동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표출된 곳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사야서 19:24-25의 재해석이다. 기원전 8세기, 아직 디아스포라의 분포가 확산되지 않았던 때에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갈등관계에 있는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전달할 매체가 되는 비전을 보았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이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 세 지역, 이 세 나라 자체가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 비전으로 돌아가서, 오직 이스라엘이 주역이 된다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다만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그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때문에 세계 평화에 구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것은 세 나라가 아니라 그 세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이다. 아시아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이 네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한국 디아스포라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전달하는 매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 받을 대상이다.

24b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아시리아에 살고 있는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아,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이 되어라”(LXX 사 19:24b-25)

이러한 재해석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유월절 예식문 『세데르』에 히브리어로 인용된 사 19:25이 마소라 본문이 아니고 그리스어

칠십인역에서 다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라는 점이다.

3.4. 복(福)의 매개체에서 해방(解放)의 주역이 되기까지, 새 종교의 탄생

“너를 ...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사 42:6)

6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7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
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새번역』 사 42:6-7)

“만방에 비치는 빛”(נֹרָא מְאִירָא “a light to the nations”) (사 42:6)은 이스라엘의 자기이해의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이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제2이사야의 이 비전이 구체적 현실이 된 시각으로 선언하였다.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셨다. 13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5 “스블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들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새번역』 마 4:12-16)

유대교가 우주의 기압과 우주의 온도에 따라 새로운 종교로 탄생한 그 시각에 기자는 새 종교를 빛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나가는 말: 남은 과제

1.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한민족(韓民族) 디아스포라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교정이 필요하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체험한 유랑과 박해와 차별과 고난이 점철된 영욕의 역사는 곧 우리민족전체의 역사라는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7세기 중국과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고구려 유민, 14세기 몽골로 이주한 고려유민, 19세기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하와이 등으로 이주한 조선유민, 20세기 반공포로 중 중립국을 선택하여 흩어진 유민 등이 제각기 그 흩어져 살아온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체험을 우리가 다 같이 통시적(通時的)으로 공시적(共時的)으로 함께 체휼(體恤)하고⁴²⁾, 우리가 함께 체험한 공동의 역사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먼저 디아스포라와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한국사 속에서 제 자리를 잡아 한민족 전체의 역사로 인식될 때, 민족사 전체에 대한 구원사적 성서적 조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본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함께, 영욕(榮辱)의 민족사 속에서 당한 고난을 대속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누리는 복의

42)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體恤)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개역』 히 4:15).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體恤)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개역』 벧전 3:8).

근원/운반자"로, 끝내는 "만방에 비치는 빛"으로 부름 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결합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인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파트너다. 교회가 "복의 근원(매개체)"으로서, "만방에 비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국교회와 고려인교회는 서로 연대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고려인의 역사가 진술된 작품들을 더 많이 번역하고 소개해야 한다.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역사가 지금 주로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 한창 다양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것과 함께 고려인 학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기존의 연구들이 모두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학문적인 노작만이 아니라 고려인들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녹아든 노래, 그림, 조각, 연극, 이야기, 음식, 주거, 복장 등이 포함 된 문화 전반이 남북한 한인들에게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5. 고려인 교회와 한국교회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한국교회를 고려인 사회에 소개하고, 동시에 고려인 교회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서로 다룰 수 있는 신앙 유산을 교환하면서 서로를 배운다.

6. 고려인 교회의 각종 통계와 현황이 필요하다. 고려인의 종교분포, 고려인 안에 러시아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각 교파 인구 현황, 고려인 출신의 러시아정교회 신부나 신학자, 개신교 목사나 신학자들 명단, 고려인 교회 정기 간행물 명단, 고려인들이 저술한 신학 서적, 성경주석, 설교, 기독교문학, 고려인들의 신학과 신앙 유형에 관한 자료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7. 150년 고려인 사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혹은 러시아를 위시한 여러 독립국가연합에 동화된 고려인의 후손들(2-5세)의 활동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생산되었거나, 지금도 생산되고 있을 것 같은 고려인 특유의 작품의 발굴이 필요하다. 러시아어로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이 구사하는 독립국가연합의 여러 언어로 기록된 저서들과 작품들이 있을 것 같

다.43)

43)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데에는 단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의 하나가 아나톨리 김 저, 이혜경 역, 『신의 플루트』(문학사상사, 2000)다. 러시아어판, 아나톨리 김, 『온리리아』(신세계, 1995). 이 장편소설은 러시아 기독교문화 속에서 성장한 고려인 3세의 작품이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이 장편 소설에 다양한 형식으로 깊고 풍요롭게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천사의 타락, 사탄의 기원과 활동,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의 혼인, 거인족의 탄생, 대홍수, 노아의 가족과 후손; 예수의 탄생, 악마의 시험, 생애, 고난, 변모(變貌), 십자가 처형, 회개한 강도,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인간의 부활(고전 1:15); 기독교 음악, 특히 기독교음악에 대한 평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종언, 심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요 1:1)는 진술은 그의 소설에서 줄곧 인용되고 활용된다. 요일 4:17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문도 중요하게 인용 활용되고 있다. 천년왕국(계 20:1-6) 역시. “이 작품에서 구름 속에 떠 있는 환상의 세계 ‘온리리아’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리스 신화, 동양의 윤회사상, 기독교의 밀레니엄 이상을 융화시킨 이 작품에서 작가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만의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김근식, “그리스 신화, 동양의 윤회사상, 기독교 밀레니엄 이상을 융화시킨 작품”, 아나톨리 김, 『신의 플루트』(문학사상사, 2000), 5, “추천의 말”). “신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악마의 간계에 의해 죽음이 생겨났고,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는 것, 따라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이혜경, “아나톨리 김의 또 하나의 문학적 성과”, 아나톨리 김, 『신의 플루트』(문학사상사, 2000), 289-290, “옮긴이의 말을 대신하여”). 작가 자신은 그의 소설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력하다. 내용을 요약하고 인용자의 말로 재진술하여 인용해 본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주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제는 죽음이다. 이제 죽음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여 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은 다시 창조 당시의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진리를, 기독교 두 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이 메시지를,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다.”(아나톨리 김, “죽음에 반(反)한 영원한 삶에 대해”, 아나톨리 김, 『신의 플루트』(문학사상사, 2000), 287-288쪽 “작가후기”). 그의 장편 소설 『신의 플루트』는 신학 쪽에서도 비평적 평가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주요어 >

해방, 추방, 집, 포로, 구속사신학, 디아스포라 신학, 구약신학

<Key Word>

New Exodus, Exile, Home, Diaspora Theology, Old Testament Theology

* 접수일 2015년 7월 28일, 수정일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20일

참고문헌

- 김덕중·안근조·이사야,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2014.
- 김영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구약논단』 21 (2006), 페이지.
- 왕대일, 『신명기 강의』,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1.
- Brueggemann, Walter., *Old Testament Theology: Essays on Structure, Theme and Text*, Minneapolis: Fortress, 1992.
- Brown, William P.,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The Bible, Science, and the Ecology of Wo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Dozeman, Thomas B.,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Gnuse, R., "*Heilsgeschichte*" as a Model for Biblical Theology: The Debate Concerning the Uniqueness and Significance of Israel's Worldview,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 Goldingay, John., *Old Testament Theology: Israel's Gospel*,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3.
- Knierim, Rolf P.,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 Levenson, Jon D., *The Hebrew Bible, the Old Testament, and Historical Criticis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 Pleins, David., *The Social Visions of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 Polzin, Robert.,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 I Samuel*,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Sharp, Carolyn J., "The Trope of 'Exile' and the Displacement of Old Testament Theolog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1:2 (2004), 153-169.
- Smith, Daniel L., *The Religions of the Landless*, Bloomington: Meyers Stone,

1989.

Sperling, D., *The Original Torah: The Political Intent of the Bible's Write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Yoder, John H., "Exodus and Exile: The Two Faces of Liberation," *Cross Currents* 23:3 (1973), 297-309.

<초록>

유라시아 유민 150년: 한반도 지평에서 본 추방과 해방

민영진

(C&C 고문, 前 대한성서공회 총무)

지난 20여 년 동안 유라시아 고려인 유랑 역사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있었다. 200여 편의 논문 주제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역사, 구소련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 러시아에서 진행된 민족운동에 관한 역사, 연해주와 사할린 한인사회의 역사, 동아시아의 식민과 분단의 역사, 한중일 3국 역사 공동 집필, 고려인과 한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상태, 그들의 민족 정체성, 그들에 관한 인류학적 심리학적 연구,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 관련 정책방향, 국제이주론, 노동력의 국제이주, 인구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핀 고려인 연구, 구소련 내 고려인의 민족 문제,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원동의 한인들의 생활,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이 쓴 소설들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각 분야 학자들의 노고를 볼 수 있다.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기독교 쪽에서는 그 참여가 미미하다. 한국 교회나 신학이 유라시 고려인이나 사할린의 한인들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한 글은 200여 편 논문 중, 두세 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체

협한 유랑과 박해와 차별과 고난이 점철된 역사는 곧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라는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체험을 우리가 다 같이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체휼(體恤)하고(히 4:15; 벰전 3:8), 우리가 함께 체험한 공동의 역사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먼저 디아스포라와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한국사 속에서 제 자리를 잡아 한민족 전체의 역사로 인식될 때, 민족사 전체에 대한 구원사적 성서적 조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본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민과 전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함께, 영육의 민족사에서 체험한 고난(苦難)을 대속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민족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끝내는 “만방에 비치는 빛”으로 부름 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결합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150 years of Eurasia Displaced People:
Their Expulsion and Liberation seen from the Korean
Peninsula

Prof. Young-Jin Min
(Former General Secretary of Korean Bible Society)

A variety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wandering history of Eurasian Koreans in the past 20 years. After analyzing more than 200 thesis, I found that the followings were common themes;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Russia, history of Korean deportation by Stalin, history of Russian Korean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history of national movement in Russia, history of Korean communitie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nd Sakhalin, history of colony and division in Far East Asia, co-authorship of history of Korea, China, and Japan, general psychological condition of Russian Koreans, national identity of Russian Koreans, anthropological and psychological study on Russian Koreans, law and policies regarding overseas Koreans, theory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international immigration of labor, study of Russian Koreans from population geographical perspective, national issues of Koreans in former Soviet Union, life of Russian Koreans in Central Asia and in Far East Asia, and fictions written by Russian Koreans in Central Asia. Efforts by many scholars in humanities can be found in these studies. I may be ill-informed, but found that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effort was small. Out of more than two hundred, only two or three studies tried to offer theological approach on Eurasian Koreans and Sakhalin Koreans by the Korean church.

In case of dealing with the issue of identity of Eurasian

Koreans, instead of regarding it as a problem, I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Koreans on Diaspora Koreans needed a correc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 sense of history that the history of wandering, persecution, discrimination, and suffering experienced by Korean Diaspora is the history of all Koreans. It is concluded that we are to restore national homogeneity with the Korean Diaspora by empathizing with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diachronically and synchronically, and by sharing common historical awareness.

When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finds its right place in the whole Korean history, it will be possible to offer salvific and biblical illumination on the whole Korean history. When Koreans in the homeland and Korean Diaspora all over the world work together in discovering the meaning of our suff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alvation, and when we claim our national mission to be “a channel of God’s blessing to all people in the world” and “a light shining all over the world,” coupled with our own founding vision of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 then we will be able to make carry out of mission in concrete ways.